

“항공기 참사, 특별법 개정해 진실 밝혀달라”

‘유가족협의회’,李대통령에 4개항 건의
“국토부 종속 조사위 철저 조사 불가능”
李 “충분히 검토해 모든 범위 내 최선”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진실 규명과 엄정한 책임을 묻기 위한 특별법 개정을 포함해 4개 항을 요구했다. 김유진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 2기 대표는 지난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적 참사 유가족 경정행사’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에 참석해 “오늘은 참사가 발생한 지 200일째”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당시 여객기 참사로 어머니, 아버지, 남동생을 한꺼번에 잃은 유가족이다. 김 대표는 “고통과 상실 속에 울부짖는 저희를 외면하지 않고 이렇게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대통령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특별법 개정을 통한 진상 규명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독립 ▲둔덕과 항공 안전 시스템에 대한 전수 점검 ▲트라우마센터 등 국가의 책임 있는 후속 조치 등 총 4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그는 특별법 개정과 관련 “진실을 끝까지 규

명하고 엄정한 책임을 묻기 위해선 특별법에 진상 규명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개정이 필요하다”며 “사조위와 별개로 독립성과 수사 권한을 확보한 특수위를 구성해 유가족들의 조사 과정에 대한 알 권리와 신뢰를 보장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또 “국토부 산하 조직인 사조위의 독립이 필요하다”며 “사조위의 예산과 인사권이 모두 국토부에 종속돼 있는 구조로 공항 건설 당사자인 국토부, 제주항공, 보잉에 대해 공정하고 철저한 조사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김 대표는 ▲6개 공항 둔덕·비행기 안전 시스템 전수 점검 ▲대한민국 항공 안전 시

스템 구조적 문제 재점검 ▲마음회복센터·유가족센터 등 트라우마센터 설치 등을 요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국민을 지켜야 할 정부의 책임을 다하지 못해 많은 사람들이 운명을 달리한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국민을 대표해 사죄 말씀을 드린다”며 “여러분들의 말씀을 충분히 검토하고 가능한 모든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겠으며 국가의 부재로 인해 억울한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행사 말미에도 “사고도 마음 아픈데 사고 후에 책임자인 정부 당국자의 이해할

수 없는 태도가 더 마음 아팠을 것”이라며 “안전한 사회, 돈 때문에 생명을 가버려 여기저기 않는 사회, 목숨을 비용으로 치환하지 않는 사회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7일 브리핑을 통해 “12·29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새 정부에서는 안타까운 사고로 국민들이 생명을 잃지 않게 전 부처, 전 공무원들이 새롭게 각오를 다지고 참사 예방에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며 “다만, 이 사건은 이태원 참사와 다르게 정치적으로 왜곡될 이유가 없는 만큼 조사 결과를 먼저 지켜보자고 유가족들을 다독였다”고 전했다. /김진수 기자

시의회, 하남산단 지하수 발암물질 현장점검

오염실태·측정 결과 등 대응 논의
“시민 알권리·안전권 보장 최우선”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17일 하남산단 입단지 일원 지하수 발암물질 유출 사태와 관련해 긴급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해당 지역 일부 지하수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1급 발암물질이 검출된 데 따른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박수기 의원이 지난 15일 제34회 임시회 시정질의에서 지적하면서 드러났다. 박 의원은 “하남산단 일부 지하수에서 기준치의 최대 460배에 달하는 1급 발암물질 트리클로로에틸렌(TCE)과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이 검출됐음에도 불구하고 2년 넘게 실질적인 행정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들과 강기정 시장, 광주시 기후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하수 오염 실태 및 측정 결과, 행정 대응 경과, 인근 지역민 안전조치 상황, 추가 확산 가능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17일 오전 강기정 광주시장과 함께 지하수 발암물질 유출 사태가 발생한 광산구 하남산단을 찾아 긴급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광주시의회 제공>

성 등에 대해 점검하고 향후 대응 계획을 보고 받았다. 최지현 위원장은 “광주시와 광산구가 오염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수 년간 즉각적인 공개나 이행조치를 취하지 않아 시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의회는 유관 기관들과 함께 중대한 직무 태만에 대한 책임 추궁과 주민 알 권리 보장, 오염 확산 방지 및 정화 대책, 제도 개선 등을 포함한 전방위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변은진 기자

전남사회단체연합 “RE100산단 특별법 적극 지지”

전남사회단체연합회는 17일 “정부의 ‘RE100 산업단지 및 에너지 신도시 조성’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발표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국가균형발전을 향한 역사적인 결단에 열렬한 지지를 보낸다”고 밝혔다. 전남도청에

서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이번 특별법 제정은 단순한 산업단지 조성을 넘어 전국에서 가장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보유한 전남도가 그간 일관되게 추진해 온 에너지 전환 노력과 정책적 비전이 국가 정책에 공식 반영된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연합회는 또 “RE100 산단 조성은 기업에게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공급을, 지역에는 첨단산업 유치 및 양질의 일자리를, 국가적으로는 송전망 건설비용 절감이라는 1석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전략적 정책”이라며 “RE100 실현의 최적지인 전남에서 RE100 산단이 성공적으로 조성돼 지역소멸을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하는 데 성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양시원 기자

윤범모 前 국립현대미술관장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 선임

8월 개막 디자인비엔날레 성공 개최

2026년 비엔날레 본전시 준비도 탄력

(재)광주비엔날레가 윤범모(사진) 전 국립현대미술관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재단은 17일 제198차 이사회를 열고 신임 대표이사로 윤 전 관장을 승인했다. 박양우 전 대표이사의 임기 만료 이후 이상갑 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이 직무대행을 맡아오다 지난 5월 사임한 지 2개월 만의 선임이다.

윤 신임대표이사 취임으로 오는 8월말 개막하는 ‘2025 광주디자인비엔날레’와 2026년 열릴 제16회 광주비엔날레 본전시 준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재단 이사회는 윤 대표이사가 민중미술을 토대로 한 한국미술 연구에 꾸준히 기여해왔으며 대중의 관심을 끈 전시를 다수 기획해 온 점, 2019년 국립현대미술관 관장을 역임하며 대표 문화기관을 운영한 경력을 신임 배경으로 설명했다. 윤 대표이사는 1982년 동아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미술평론에 등단한 뒤 수십 권의 저서를



펴낸 미술사학자이자 비평가로 가천대 미술대학 교수와 동국대 석좌교수를 지냈다.

또한 호암갤러리(현 리움미술관), 예술의전당, 이응노미술관, 경주 솔기미술관 등 주요 미술관의 개관을 책임졌으며 2016 경주세계문화엑스포와 2018 창원조각비엔날레의 총감독을 맡아 대형 전시를 이끈 바 있다.

광주비엔날레와도 인연이 깊다. 1995년 창설 당시 집행위원과 특별전 큐레이터로 활동해 대통령 표창을 받았으며 2014년에는 2014 광주비엔날레 특별전 ‘달콤한 미술, 1980 이후’를 기획했다.

윤범모 대표이사는 “광주비엔날레 창설에 함께한 지 30년이 흐른 지금 대표이사로 다시 서게 돼 개인적 영광보다는 책임감이 더 무겁게 느껴진다”며 “창설 선언문에서 강조한 시민정신과 예술 전통을 바탕으로 광주비엔날레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예술 담론 생산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명진 기자

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무죄 확정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판결을 확정했다. 법원은 이 회장이 안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각종 부정거래와 회계부정을 저질렀다는 검찰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 중 일부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이며, 수집된 물증의 경우에도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고법 판단이 그대로 인정됐다. /연합뉴스

◀ 광주매일신문

“좋은 生活시작하는 廣告인네”

가장 알뜰하게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광주매일신문 廣告.
사랑받는 廣告로 마음과 마음의 만남을
소중하게 이어드리겠습니다.

광고문의 및 출장접수
▶광고국/☎ 650-2099
650-2071~2
F. 650-2016
▶시내지국 및 각 지방지사

**구독신청
배달사고**

**문의
650-2022**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상담**

1976년부터 우리지역에서 발생하
는 기아, 미아, 미혼모 아동 및 결손아
동을 일시보호 후 친부모를 찾아주거
나 국내입양 상담으로 양부모를 결연
하여 아동들에게 따뜻한 가정을 만들
어 주는 아동복지 전문기관입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후원 및 자원봉사
광주영아일시보호소

상담
문의 062)222-1095, 1096

대명OA

취/급/품/목

- 복사기
- 컴퓨터
- FAX
- 레이저 및 잉크젯 프린터
- 전산소모품
- 레이저(토너/드럼)
- 카트리지
- 각종 잉크류
- 복사용지
- 팩스용지
- 판매
- 임대
- A/S

T.375-5880

1) 임동5거리 8층 135평 은행감각가 6억1,600
급매가4억1,000(3,000세대아파트 대로변)

2) 용자금(14억)만 안고 그냥 이전해가세요
산수동5거리 4층건물 대지150평 연건평380평
주차15대

3) 대인광장로타리 상업지 178평을 급매합니다
평당1200만원(조정됨)입니다

4) 운암자이(구주공)등5,000여세대
대로변코너 대지202평 5층622평
승강기1,주차11 급매43억

5) 드라이브스루 마케팅용빌딩
남부권 관문, 아파트1만세대 생활권 6차선대로변
대지606평 지하1층 지상3층
승강기1, 에스컬레이터 각층, 주차92대 가능
급매98억

급히구합니다 = 조건맞으면 바로 계약합니다

상가빌딩, 상가주택, 모텔, 가든, 내대지
야영장, 창고부지, 물류센터부지 등등 찾고있습니다.

[급매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대표 **유재관 010-6495-3787**
광주 북구 임동480 LH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개입구
등록번호 북구29170-2019-00097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가 함께 합니다

외상대금	돈	빌려준돈
공사대금		투자금
장비대금		약정금
전세금		임대료
부도어음		구상금

받아드립니다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사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채권팀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그동안 쌓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안채권, 상거래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못 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 주세요!! ★
062)719-3380, 010-8678-4638